

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기술개발 선도한다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5.07 09:53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지난 4월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원이 투입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을 설치·운영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